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그래프/분석)-中 경제에 커진 여섯 개의 경고등
- ◇ (초점)-채권 테마 '인하 → 수급' 이동에도 커브는 플랫(?)..반전 장세 이유는
- ◇ (초점)-당국 개입·하이닉스 물량에 방향 바뀐 크로스 시장..연말 수급대전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캐리 램 홍콩 행정수반(오른쪽)이 홍콩 의회 연례 연설이 취소된 직후 의사당을 떠나고 있다. (로이터/타이론 슈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10월18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18(%)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18(%)
달러 대비	1,181.5	0.6%	-5.6%	-4.1%	유로	1.1169	1.2%	-2.6%	-4.4%
100엔 대비	1,086.2	0.4%	-6.5%	-6.9%	엔	108.42	0.0%	1.1%	2.8%
유로 대비	1,315.6	-0.8%	-2.9%	0.2%	위안	7.0772	0.5%	-2.9%	-5.3%
위안 대비	166.30	0.3%	-2.7%	1.3%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18(%)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18(%)	다우존스	26,770.20	-0.2%	14.8%	-5.6%
코스피	2,060.69	0.8%	1.0%	-17.3%	나스닥	8,089.54	0.4%	21.9%	-3.9%
코스닥	646.69	2.2%	-4.3%	-15.4%	S&P500	2,986.20	0.5%	19.1%	-6.2%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8(bp)	MSCI APxJP	512.78	1.5%	7.5%	-16.2%
국고채 3Y	1.375%	9.4bp	-44.2bp	-31.8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8(bp)
국고채 5Y	1.460%	11.0bp	-42.4bp	-45.9bp	미국채 2Y	1.578%	-2.0bp	-92.0bp	60.7bp
국고채 10Y	1.587%	9.9bp	-36.1bp	-52.1bp	미국채 10Y	1.754%	1.9bp	-93.7bp	28.0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18(%)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18(bp)
유가(WTI)	53.78	-1.7%	18.4%	-24.8%	한국 5Y	30.39	-1.80	-7.68	-13.74
금(현물)	1,489.70	0.0%	16.1%	-1.5%	일본 5Y	20.63	-0.77	-1.16	-3.34
TR상품지수	2,348.97	-0.1%	-1.0%	0.0%	중국 5Y	39.60	-4.39	-26.87	16.96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로이터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국내 주요 주간 일정

<10월 21일(월)>

- 관세청, 20일까지 수출입 동향
- 한은, 9월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12:00)

<22일(화)>

- 한은, 9월 생산자물가지수(06:00)

<23일(수)>

- 특이 일정 없음

<24일(목)>

- 한은, 3/4 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08:00)
- 기재부, 1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0월 발행실적(17:00)

<25일(금)>

- 한은, 10월 소비자동향조사(06:00)
- 한은, 9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12:00)
- 한은, 3/4 분기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12:00)

해외 주요 주간 일정

<10월 21일(월)>

- 일본, 9월 수출입 (8:50)
- 중국, 9월 주택가격 (10:30)

<22일(화)>

- 미국, 9월 기존 주택판매 (23:00)
- 일본 휴장

<23일(수)>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0:00)
- 미국, 8월 주택가격 (22:00)
- 유로존, 10월 소비자신뢰지수 잠정치 (23:00)

<24일(목)>

- 일본, 10월 지분은행 제조업 PMI 잠정치 (9:30)
- 일본, 8월 경기선행지수 수정치 (14:00)
- 스웨덴 중앙은행 기준금리 발표(16:30)
- 유로존, 10월 마르키트 제조업(서비스업) PMI 잠정치 (18:00)

- 유럽중앙은행(ECB) 정책회의 후 금리 발표 (20:45) 및 마리오 Дра기 ECB 총재 기자회견 (21:30)
- 미국, 9월 건축허가 수정치 (21:00)
- 미국, 9월 내구재주문 (21:30)
-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1:30)
- 미국, 10월 마르키트 제조업(서비스업) PMI 잠정치 (22:45)
- 미국, 9월 신규주택판매 (23:00)
- 미국, 10월 캔자스시티연은 제조업지수 (자정)

<25일(금)>

- 미국, 10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확정치 (23:00)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외환시장>

- 글로벌 달러 약세 압력과 부진한 국내 경제 펀더멘털 여건이 서로 부딪히는 가운데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박스권 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170-1190 원**이다.
- **24 일**에는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 회의도 예정돼 있다. 다만 추가적인 부양책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만큼 이번 ECB 이벤트는 무난하게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 영국과 유럽연합(EU)이 타결한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해 영국 하원이 승인을 보류하기로 했지만 일단 이후 상황을 보려는 심리도 적지 않은 만큼 시장 심리가 당장 크게 위축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 무엇보다 내달 APEC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중국 정상에 1 단계 무역 합의에 대해 최종 서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지되면서 위험선호 심리가 크게 훼손되지 않고 있다.
- 다만 이번 주는 한국의 펀더멘털 여건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인 수출과 GDP 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다. **21 일**에는 이달 20 일 기준 수출입 잠정치, **24 일**에는 3 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치가 발표된다.
- 한국 경제가 그동안의 부진에서 벗어난다는 뚜렷한 신호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달러/원 환율은 하단이 견고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채권시장>

- 이번 주 채권시장은 뚜렷한 재료가 없는 가운데 제한적인 범위에서 등락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 국채선물 시장에서 외국인과 개인투자자 간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어 마찰적인 요인에 따른 변동폭 확대 가능성이 있다.
- **10 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기점으로 시장 금리가 한 단계 더 올라왔다. 레벨상으로 매수에 큰 부담이 없는 수준이라는 인식도 적지 않아 밀리는 데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 통화당국도 시장도 향후 경제 방향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경제지표에 대한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 한국은행은 **24 일 3 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치를 발표한다. 올해 국내 성장률이 **1%대**로 추

락할 지 여부가 확인될 수 있는 만큼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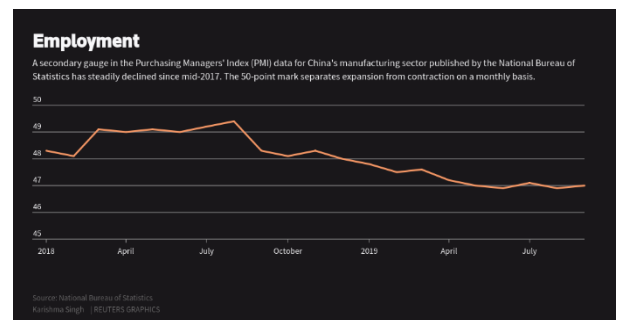
- 시장에선 향후 경제의 방향을 가늠할 민간부문의 성장 기여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 **25 일**에는 **10 월** 소비자동향 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그래프/분석)-中 경제에 커진 여섯 개의 경고등

베이징 (로이터) - **13 조** 규모 중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 화물 운송에서 전력 발전, 고용에서 엔터테인먼트 지출에 이르는 각종 지표들이 이를 시사하고 있다.

다음은 중국의 둔화 상태를 보여주는 여섯 가지 지표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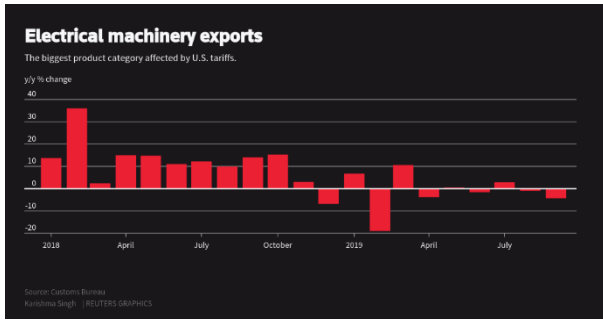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제조업 일자리

중국의 공식 실업률은 보합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수 부진과 미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제조업부문의 해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

구매관리자지수(PMI)의 고용 지수는 지난해 이후 급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8 월** 고용지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47** 아래로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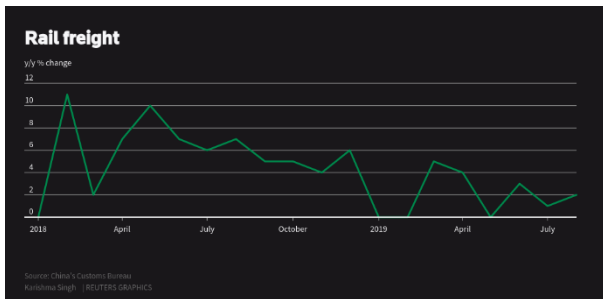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전기 기기 수출

전기 기기 수출은 지난해 말 수축되기 시작했다. 2018년 대부분의 기간동안 두자릿수 성장세를 보여왔던 것과 대조적이다.

2019년에는 수출이 감소하고 있어 미국의 관세가 중국 제조업체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음을 시사했다. 9월 수출 감소폭은 계절적 요인으로 왜곡된 2월을 제외하면 근 10개월래 최대였다.

위안 약세도 수출 감소를 막지 못했다. 위안은 지난해 초 무역전쟁 개시 이후 달러 대비 12% 절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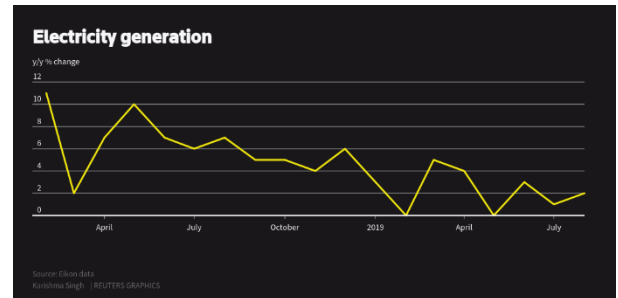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철도 화물

1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중국내 철도 화물 운송량의 연간 성장률은 내수 약화에 2017년 말 이후 매월 낮아지고 있다.

이전 두자릿수의 월간 증가율을 기록했던 것과는 달리 철도 화물은 한자릿수 증가율, 심지어는 마이너스로 둔화됐다. 중국철도총공사가 올 4월 경기부양을 위해 화물 운임을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둔화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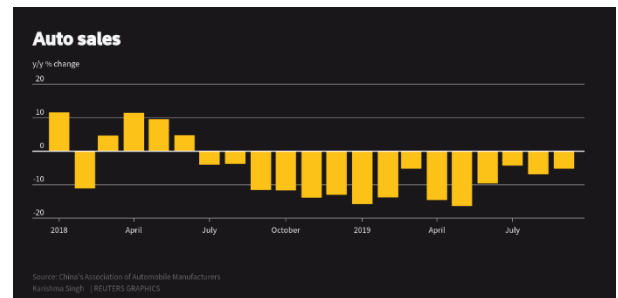
철도 화물은 리커창 총리가 2000년대 중반 라오닝성 서기였던 시절에 경제 성장 척도로 선호했던 지표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전력 발전

세계 최대의 중국 발전업계는 공업부문 활동의 주요 척도다. 전력 발전 성장세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눈에 띄게 둔화되며 3년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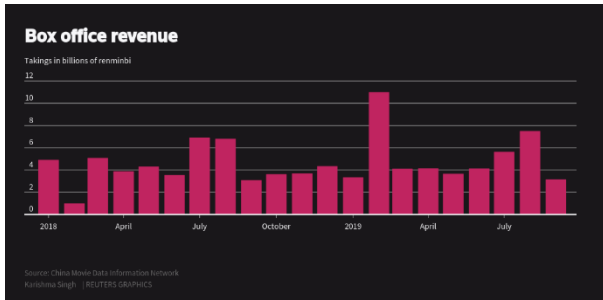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자동차 판매

중국의 지난해 자동차 판매는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9월에는 15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해, 자동차 시장의 빠른 반등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다.

자동차 외에 중국 소비자들은 소득 성장세가 둔화되고 부채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스마트폰에서 가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의 구입을 줄이고 있다.

소비자 지출은 중국 경제의 60%를 차지한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박스오피스 매출

중국의 2018년 영화 박스오피스 매출은 9% 성장하는데 그쳤다. 2017년에는 13.5% 가까이 증가했었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인 중국 영화시장의 둔화세는 올해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로이터가 중국 영화 데이터 정보 네트워크의 일일 통계를 기반으로 계산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박스오피스 매출은 2018년 9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

(초점)-채권 테마 '인하 → 수급' 이동에도 커브는 플랫(?)..반전 장세 이유는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채권시장이 격랑에 빠져들고 있다.

'두 차례 금리 인하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통화정책 방향 성명서 문구를 감안할 때 연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사라진 상황이다. 여기에 전통의 매파 이일형 금융통화위원회에 더해 임지원 위원이 기준금리 동결 소수의견을 내자 채권시장의 테마가 수급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16일 채권 가격 움직임이 이런 논리와 반대로 움직이면서 시장 참가자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다. 수급 장이 도래했을 때 상대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장기물이 선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격 변화에 대해 시장에선 개인투자자의 저가매수와 외국인의 포지션 정리가 맞물리며 수익률

곡선에 왜곡이 나타난 것이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 채권 테마 수급으로 바뀌는데 커브는 플랫..시장 '설왕설래'

16일 오후 2시 23분 현재 3년 국채 선물 12월물은 전날보다 7푼 하락한 110.72, 10년 선물은 6푼 내린 132.12에 거래되고 있다.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 날 금통위 결정에 이일형·임지원 위원이 동결 소수의견을 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3년 선물이 110.63, 10년 선물이 131.73까지 떨어졌던 것을 감안하면 큰 폭의 반등세가 나타났다.

주목받는 것은 장기물의 선전이다. 임지원 위원의 소수의견 가세로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감이 다소 희석된 만큼 연말 수급 이슈가 채권시장의 큰 테마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늘어난 상황이다. 하지만 수급 이슈가 부각됐을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장기물 채권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자 다수의 딜러가 의문을 품게 된 것이다.

A 외은지점 이자율딜러는 "임지원 위원이 내년 경기 반등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동결 주장을 내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내년 초 금리 인하보다는 2분기 정도를 기대하는 게 합리적일 듯하다"며 "결과적으로 시장의 테마는 금리 인하에서 수급으로 넘어간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신기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브가 납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홍콩 사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노출하게 된 게 커브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아니면 금리 인하가 늦춰지면서 경기 둔화 전망이 강화됐다는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B 증권사 채권운용팀장은 "현재 금리 수준에서 장기투자기관이 자산, 부채 듀레이션을 매칭하겠다고 적극 매수하기는 쉽지 않다"며 "이 레벨에서 잘못 매수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만큼 당분간 필수 수량만 사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험사의 듀레이션 매칭 수요는 여전히 크기 때문에 금리 레벨이 올라갈 때마다 새로운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은 있다"며 "시장의 테마가 수급으로 옮겨가면 전반적으로 장기물이 불리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개인·외인 선물매매 격돌..일부 가격 왜곡 지적도

시장 참가자들은 이날 가격 움직임을 다른 시각에서 설명하기도 한다. 3년·10년 선물시장에서 매수 호가를 대고 있던 개인투자자의 '반강제 매수'와 외국인의 포지션 정리가 맞물리며 커브 플랫닝이 나타났다는 진단이다.

이날 개인투자자는 3년 선물을 8000 계약, 10년 선물을 3000 계약가량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은 3년 선물을 9000 계약, 10년 선물을 1000 계약 이상 순매도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는 이날 이주열 한은 총재의 기자회견담회 직전에 3년과 10년 선물로 대규모 매수 호가를 대놓고 있었다. 임지원 위원의 소수의견 소식이 전해지며 가격이 급락하자 개인투자자가 대놓고 있던 호가에서 그대로 거래가 체결된 것이다.

반면 외국인의 선물 매도는 3년 선물에서 강하게 나온 반면 10년 선물 매도는 상대적으로 약해 커브가 플랫됐다는 지적이다.

C 증권사 채권본부장은 "오늘 시장이 반등을 못할 것으로 봤는데 다 올라왔다"며 "개인투자자가 3년·10년 선물 시장에서 매수로 다 깔아놨는데 가격이 급락하면서 다 맞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내년 금리 인하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당분간 3년물 기준으로 1.25%를 깨고 내려가긴 어렵지 않나 싶다"며 "다만 다른 나라들도 모두 기준금리와 채권금리가 붙고 있는 만큼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매수세가 계속 유입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D 시중은행 이자율딜러는 "현재 책임 기간이 가장 길게 남은 임지원 위원이 소수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개인투자자가 아니었으면 제대로 조정장이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추가 금리 인하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면 커브 플랫인데 수급으로 보면 스팀이 맞다"며 "수급이 언제나 이긴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개인투자자가 선물을 매수한 후에 안 움직인다는 것"이라며 "마치 장투기관처럼 선물거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점)-당국 개입·하이닉스 물량에 방향 바뀐 크로스 시장..연말 수급대전 임박했나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외환당국의 개입 물량과 SK 하이닉스의 숨은 부채스왑이 지난 8월 중순 이후 통화스왑(CRS) 금리 반등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향후 방향성 역시 수급이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늘고 있다.

포스코 등의 부채스왑 파이프라인이 줄줄이 대기 중인 상황에서 중공업체의 선물환매도와 보험사의 자산스왑 등 리시브 물량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가 관건이다.

▲CRS 5년 금리 마이너스 진입 후 달라진 시장 분위기

8월 들어 가파르게 하락하던 CRS 금리는 8월 16일을 기점으로 반등하기 시작했다. 그때는 CRS 5년 금리가 장 중 -1bp 거래된 날이다. 7월 말 0.485%였던 5년 CRS 금리가 불과 11거래일 만에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시장에 위기가감이 커졌다.

하지만 16일을 기점으로 CRS 금리는 반등하기 시작했다.



(최근 3개월간 CRS 5년 금리 동향, 출처: 레피티브)

8월 초 CRS 금리가 급락한 근본적인 이유는 달러 IRS 금리의 하락이었다. 여기에 보험사의 자산스왑 롤오버가 지속되면서 CRS 금리를 더 끌어내렸다. 하지만 CRS 금리가 반등할 때는 달러 IRS 금리와 긴밀하게 연동하지 않았다.

CRS 금리는 9월 말부터 다시 한번 레벨을 높였다. 5년물 기준으로 9월 25일에 증가 기준 0.365% 수준이었던 CRS 2년물 금리는 30일엔 0.475%로 3거래일 동안 11bp 상승했고 CRS 5년물 금리는 같은 기간 0.205%에서 0.335%로 13bp 올랐다.

▲외환당국 개입·SK 하이닉스 물량 등 숨은 역할

CRS 금리 반등에는 외환당국과 SK 하이닉스의 숨은 물량이 영향을 미쳤다고 다수의 시장 참가자가 분석했다.

특히 외환당국은 CRS 5년물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등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개입해 시장 참가자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A은행의 한 딜러는 "외환당국이 개입할 때 보통 스팟이나 FX 스왑으로 하지 크로스는 잘 하지 않았는데 이번엔 3년 테너로 상당히 많이 페이했다고 한다"며 "크로스 5년 금리가 마이너스로 가면서 경계 심리가 커진 데다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기 때문에 시장 안정 차원에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당국이 크로스 시장으로도 개입할 수 있다는 게 확인된 점이 시장 심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달 후반부터 CRS 금리가 반등한 데는 SK 하이닉스의 부채스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SK 하이닉스는 지난달 중순 5억달러 규모로 5년 만기 유로본드(RegS)를 발행했지만, 당시 부채스왑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10월 초 일부 은행을 통해 물량을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B은행의 한 관계자는 "SK 하이닉스가 5억 달러를 발행하고 5억달러 규모의 외화대출을 또 받았다"며 "이 중 5억달러 정도를 시장에서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사실을 외화채 발행을 주관한 은행들은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페이가 계속 나온 것"이라며 "괜히 페이가 나온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금리 방향, 다시 수급 대결

문제는 앞으로의 CRS 금리 방향이다. 지난 16일 증가 기준 CRS 2년 금리는 0.475%, CRS 5년 금리는 0.395%로 이달 초 SK 하이닉스 물량이 처리된 이후 수준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이자율스왑(IRS) 금리가 크게 올라오면서 한때 100bp를 넘었던 스왑베이스스 역전폭만 80bp대로 축소된 상태다.

시장참가자들은 이번에도 수급이 향후 CRS 금리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 두산, 남부발전 등 부채스왑 파이프라인이 대기하고 있는 만큼 금리 상승 압력이 조금 더 우위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중공업체의 수주 발표가 이어져 온 만큼 일방적인 금리 상승장은 쉽지 않으리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C은행의 한 이자율딜러는 "부채스왑 큰 게 대기하고 있다고 하면 다들 먼저 오피 하기는 싫을 것"이라며 "나중에 중공업체 물량을 받고 천천히 털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중공업체 물량이 2, 3년 테너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크로스 커브가 서는 쪽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D은행 이자율딜러는 "최근에 크로스 금리를 올리는 건 모두 외국계 은행들"이라며 "딱히 거래는 되지 않고 금리만 오르고 있어 이상하게 여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말에 자산스왑 물량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도 봐야 한다"며 "부채스왑은 이벤트지만 자산스왑은 일상이라는 학습효과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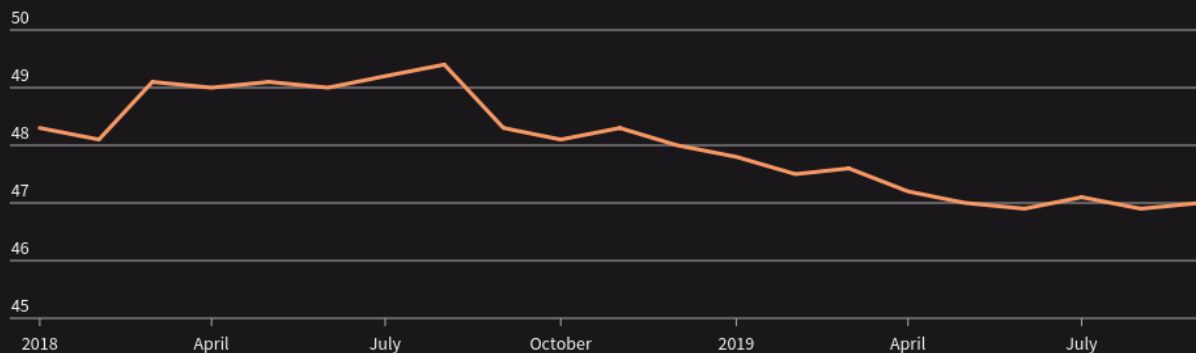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Employment

A secondary gauge in the Purchasing Managers' Index (PMI) data for China's manufacturing sector published by the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has steadily declined since mid-2017. The 50-point mark separates expansion from contraction on a monthly ba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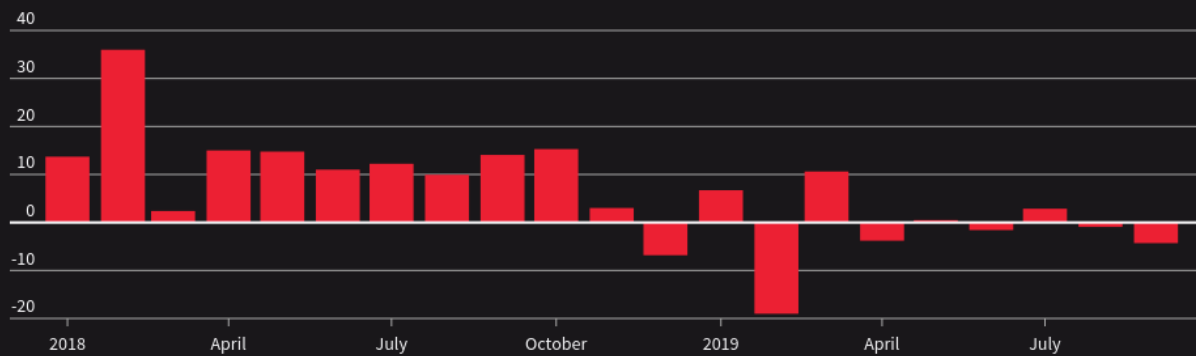
Source: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Karishma Singh | REUTERS GRAPHIC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Electrical machinery exports

The biggest product category affected by U.S. tariffs.

y/y % 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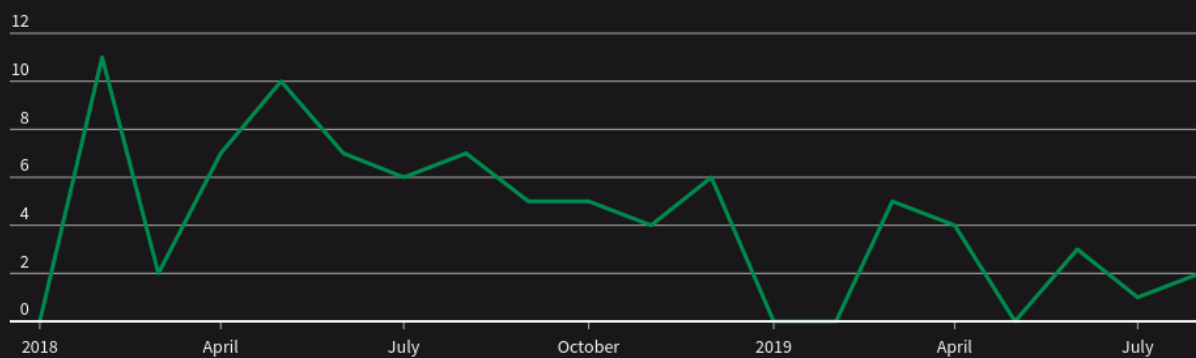


Source: Customs Bureau
Karishma Singh | REUTERS GRAPHIC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Rail fre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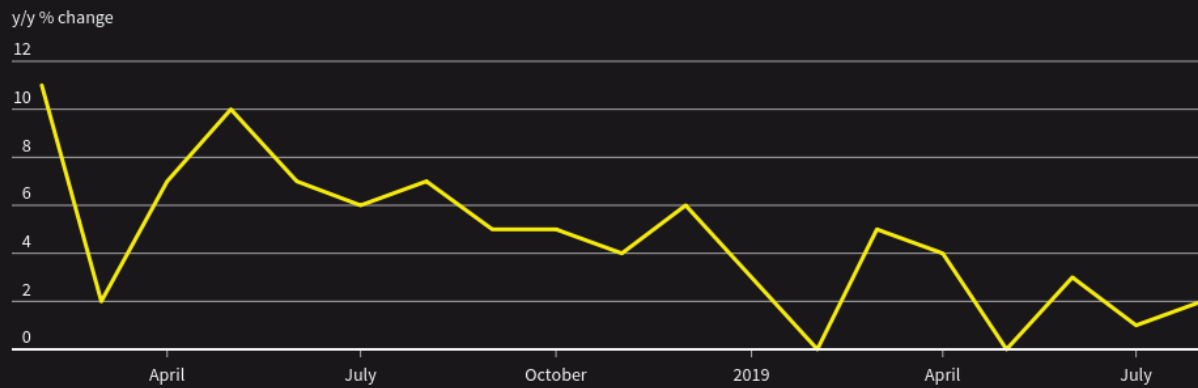
y/y % change



Source: China's Customs Bureau
Karishma Singh | REUTERS GRAPHIC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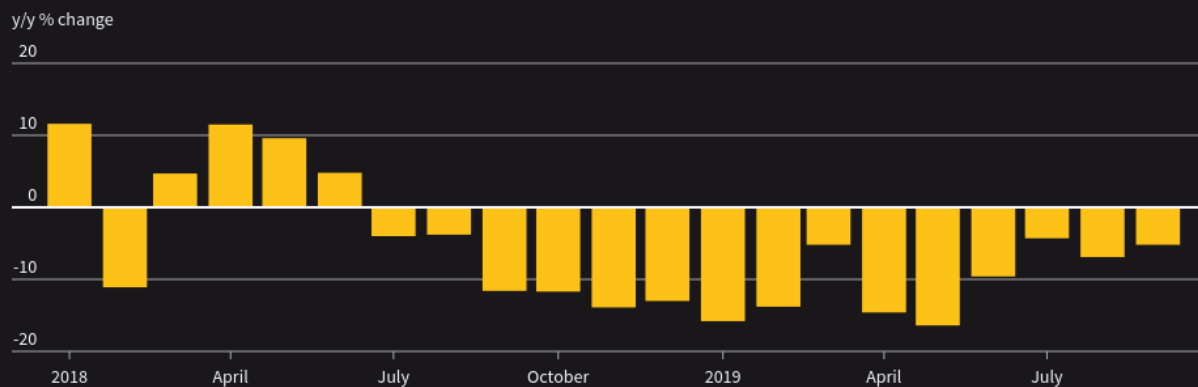
Electricity generation



Source: Elkon data
Karishma Singh | REUTERS GRAPHIC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uto sa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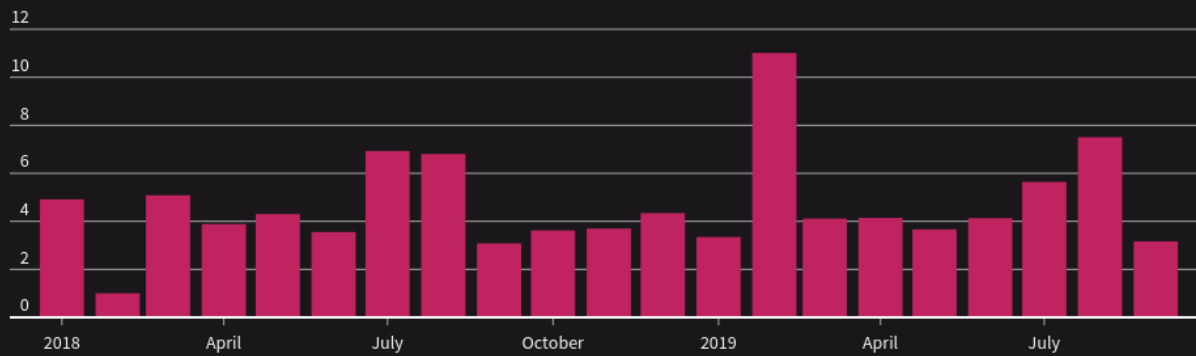


Source: China's Association of Automobile Manufacturers
Karishma Singh | REUTERS GRAPHIC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Box office revenue

Takings in billions of renminbi



Source: China Movie Data Information Network
Karishma Singh | REUTERS GRAPHIC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